



**가축사육시설면적 50㎡ 초과 규모
양돈업은 등록해야**

- 농림부, 축산법시행령중개정령 공포

농림부는 구랍 30일 축산법시행령중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축산법시행령중개정령을 살펴보면 가축사육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양돈업이 등록대상이며, 양돈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종돈업 등록시에는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한 종돈사육시설에 종돈분만시설·종돈포유시설 및 종돈육성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하며, 종돈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돈업 또는 정액 등 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돈 및 번식용 씨돼지의 사육시설을 양돈업 또는 정액 등 처리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돈업 등록의 경우 가축사육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이거나 당해 가축사육시설에 환기시설을 갖춘 것을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당초(2003년 8월 개정령안)안의 축산분뇨처리시설과 방역·위생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기존 오분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중첩되는 관계로 개정령에서 제외됐다.

**시·도지사, 필요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가능**

- 환경부, 악취방지법 공포 - 내년 1월 시행 예정

환경부는 지난 2003년 12월 31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위하여 악취방지법을 제정·공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악취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대기오염물질과 같이 관리해오던 악취를 대기오염물질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등의 세부관리지침을 마련한 후 2005년 1월경에 동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지역내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는 또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내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배출시설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축단협, 재경부에 사료원료 세제개 선 요청

- 사료 가격인상 요인 감소 위해
- 사료원료 무관세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요청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최근 국내 배합사료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 상승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경부와 농림부에 사료원료 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축단협은 지난 12월 24일 재정경제부 장관과 농림부 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최근 축산업계는 장기간 계속된 축산물 가격 하락과 소비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양축농가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축산물 가격 등으로 인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최근 FTA비준 움직임과, 국제곡물가격 상승, 국제 해상운임 급등으로 배합사료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부채에 허덕이는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 인상 폭을 감소시키고,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배합사료 수입원료에 대한 무관세 조치"와

"사료원료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2/102(1.96%)에서 5/105(4.76%)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5/105로 상향조정 될 경우, 사료업계에서는 약 33,728백만원(2003년 추정치)의 세액 절감효과가 있으며, 1.19%의 배합사료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된다.

"농림사업자금, 일반 시중은행에서 도 취급해야"

축산발전기금 등 정책자금 취급처가 농협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양축농가가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정책자금을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 관련 27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지난 12월 29일 농림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농림사업자금 취급처를 개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축단협은 "최근 장기간에 걸친 낮은 돼지고기 가격과 닭고기 및 계란가격 폭락, 우유 과다생산 등으로 폐업 및 도산농가가 늘어나는 등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농림사업자금 지원 및 융자 거래은행이 농협으로 한정되어 있어, 담보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실제 축산농가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현행 농협으로 취급이 제한되어 있는 농림사업자금을, 전국 점포망을 가진 시중 금융기관 1~2곳 정도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고 농림부에 요청했다.

12월 돼지 사육두수 923만1천두, 감소세 반전

- 전분기 0.6% 감소, 전년 동기비는 2.9% 증가

2003년 12월 1일 현재 돼지 사육두수가 923만1천두로 그동안 증가세를 유지하던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세로 반전됐으며, 모든 두수 역시 감소했다. 최근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03년 12월 가축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1일 현재 전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923만1천두로 전분기 928만7천두에 비해 5만6천마리(0.6%)가 감소했으나, 2002년 12월 897만4천두와 대비해서는 25만7천마리(2.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 사육두수는 1천두 미만 252만5천두로 전분기 대비 0.8%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5%가 감소했으며, 1천~5천두 사이는 505만8천두로 전분기 대비 1.6% 감소, 전년 동기대비는 3.2%가 증가했다. 한편 5천두 이상은 164만8천두로 전분기 대비 2.9%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는 11.2%가 증가했다.

돼지 사육가구수는 1만5천240호로 전분기보다 1.5%(230)농가가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보다는 무려 12.6%(2천220농가)가 양돈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구당 마리수는 605.6두로 전분기 대비 0.9%(5.2두), 전년 동기보다는 17.7%(90.9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농림예산 9조4천3백63억

새해 농림부 소관예산이 9조4천3백6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 전체 예산은 정부안보다 약800억원이 증액된 118조3000억원으로 편성

토록 하되 FTA피해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변경하고 한·칠레 비준동의안 처리 후 반영기로 했다. 국회는 구랍 30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안을 이같이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올 농림부 예산은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금리 인하에 따른 2천67억원을 증액시킨 것을 비롯해 총 6천873억원이 늘었다.

농업용 면세유, 전용카드로만 구매 가능

- 오는 7월부터, 면세유 연간 2만리터 사용 농가대상

오는 7월부터 농업용 면세 석유류를 연간 2만리터 이상 공급받는 농업인은 전용 구매카드를 이용해 구입해야 한다.

농림부는 최근 농업용 면세유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면세 석유류 전용 구매카드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년도 공급실적 기준으로 연간 2만리터 이상을 공급받는 농업인에 한해 전용구매카드를 발급, 이 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산물 생산실적신고서 제출대상 농업인을 연간 8만리터 이상에서 2만리터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고, 대상농기계도 농업용난방기에서 면세석유류 공급대상 전 농기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면세석유를 구입하기 위해 농협 등에서 발급받는 '구입권'의 사용한다 시기

도 현재는 연도내 사용에서 '2개월'이내로 단축, 석유류 구입권이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농업용 면세석유류 총 공급한도량은 300만4000킬로리터며 면세감면액은 약 1조원에 된다.

농어촌특별세 과세시한 10년간 연장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이 201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중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4년부터 10년간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이 200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농업 관련 다자간 협상 및 자유무역 협정 체결 등에 따른 농어업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인한 손실 보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과세 시한을 201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연장했으며, 농어촌특별세를 관리하는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기간도 2014년 12월 31까지 10년간 연장했다.

충북 영동서 돈열 발생

지난 1월 6일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김 모씨(47)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돈열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로써 충북지역은 지난 1997년 단양군에서 토종돼지가 돈열로 폐사한 뒤 7년만에 돈열이 발생했다.

김씨의 농장은 12월 초순부터 돈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 34마리가 고열과 설사 등 돈열 증세로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영동군은 지난 1월 6일 이 농장의 돼지 중 돈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마리를 살(殺)처분했으며 돼지 이동과 차량 출입을 통제해왔다.

베트남·말레이시아 국내산 종돈 수입 가능 입장

최근 농림부는 베트남 대사관과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통해 한국산 종돈 수출 가능성을 문의한 결과, 양국은 국내산 종돈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종돈개량에 필요한 우량 품종의 종돈에 대해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한국과는 2002년 동물검역기관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매우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우량 종돈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역시 2002년 한국에서 구제역 발생했을 당시에 한국산 돼지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종돈 수입두수 감소세 뚜렷

- 2003년 782두 수입, 전년비 39% 줄어

2003년 한해 종돈 수입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따르면 2003년도 종돈 수입두수는 통관기준 미국 491두, 캐나다 280두, 일본 11두 등 총

782두로 2002년 1천274두에 비해 38.6%(492마리)가 감소했다 것이다. 이로써 종돈 수입 두수는 1999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으며, 특히 이는 2003년 시장접근불량 1천768마리 가운데 44.2%에 불과한 두수다.

이처럼 종돈 수입두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돈열 재발 등과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돼지 값이 하락하자 양돈농가들이 종돈 구매의 연기 또는 포기한 가운데 상당수 종돈 수입업체들이 신청불량을 반납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수입육류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추진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포함된 육류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지난 1일 수입육류가 포함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기 이식용 무균돼지 생산에 7백 4억 투입 계획

인체장기 이식용 무균돼지 생산연구가 디지털TV,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이동통신 등과 함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된 바이오 신약/장기 부분의 일부로 선정됐다.

장기복제 이식기술은 농림부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3개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하

게 되는데 농림부는 복제장기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총 7백4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2008년까지 매년 7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가금 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213억원 지원

정부는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총 21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1월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가금 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500여곳과 도축장, 가공업체, 부화장 15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가금 인플루엔자 위험지역 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을 최고 1천만원씩 모두 10억원을, 경계지역 농가에는 최고 1천만원씩 4억7천만원을 무상보조키로 했으며, 가축입식자금으로 32억5천만원을 융자키로 했다.

또한 가금 인플루엔자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도축장, 가공공장 및 부화장에는 경영안정자금 166억원을 융자해줄 계획이다.

가축개량 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농림부는 구랍 31일 축산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축개량총괄기관및가축개량기관을 개정고시했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와 기존의 가축개량기관인 도축산관련 연구기관,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외에 축산물등급판정소와 한국

가축인공수정사협회를 신규로 추가했다.

제1차 축단협·축학협 회장단회의 개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 및 한국 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김창근)는 지난 1월 15일(목) 양돈협회 임원실에서 2004년 제1차 축단협·축학협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유동준 단미사료협회장, 최준구 양계협회장과 김창근 축산분야 학회 협의회 회장, 백인기 부회장, 최운재 교수 등 5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축산국 폐지 반대운동에 대한 향후 활동방안과 DDA/FTA 협상 동향에 따른 대응방안 및 신 축산회관 건립 추진 등 최근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했다.

축단협, 축산회관 이전문제 등 논의

축산회관 확대 이전 건립 계획이 새해 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지난 1월 8일 축산회관에서 김건태 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주요축종단체장, 박순용 종축개발협회장 등이 모임을 갖고 그동안 추진해온

축산회관 이전 문제를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축산회관 이전과 관련해 재단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이전 대상지역으로 물색중이던 경기도 과천, 수원, 의왕, 안양 등 이전 대상지역 가운데서 조만간 부지를 확정짓기로 했다. 또한 부지확보를 위한 재원은 기존 축산회관을 담보로 한 대출과 함께 일부 부족분의 경우 기금모금 등을 통해 확보한 뒤 정부 지원금을 보태 건립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진청, 기능중심으로 조직 개편

-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소로 명칭 개편

농촌진흥청(청장 김영욱)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1월 12일 밝혔다.

지난 1월 농진청 본청은 기존 연구관리국이 연구기획에 집중하기 위한 연구개발국으로 개편됐으며 기술지원국은 농촌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지원국으로 이름을 바꿨다.

소속기관은 작물시험장과 호남농업시험장, 영남농업시험장을 통합, 작물과학원으로 개편됐으며 작물과학원 산하로 호남농업연구소와 영남농업연구소, 목포시험장을 두게 했다.

농업과학기술원은 친환경 농업 연구와 농산물 안전성 연구를 보강하기 위해 농업생물부와 농산물안전성부를 신설하면서 각각 잡초와 유해 물질 연구기능을 강화시켰다.

또 인삼 연구를 전담할 인삼약초연구센터가 농업과학기술원에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축산기술연구소는 축산연구소로, 농업기계화연구소는 농업공학연구소, 고령지농업시험장은 고령지농업연구소, 제주농업시험장

은 난지농업연구소로 각각 조직 명칭이 개편됐다.

한국자조금연구회, “자조금 사업 추진상황 점검” 세미나 개최

한국자조금연구회(회장 박영인)는 1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동 소재 aT 센터 3층 회의실에서 자조금 단체 책임자, 주요요원 및 농업관계 신문잡지 기자 등 총 20여명을 대상으로 “자조금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조금 사업의 역사적 의미’라는 주제 발표와 함께 양돈 의무자조금의 설치과정과 운영예상에 대한 양돈협회의 발표와 양계, 나농, 한우, 원예 등 품목별 자조금의 추진현황과 전망 발표 등이 있었다.

또한 ▲자조금과 관련한 현행 법규의 고찰과 개정방향 ▲행정 지도상의 경험과 개선 방안(농림부) 등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었다.

■문의 : (02)516-6415

한국양돈연구회, 제3회 양돈기술 세미나 2월 20일 개최

- 2004 정기총회 및 회원 단합수련회 개최

한국양돈연구회는 오는 2월 20일 오후 2시, 대전 계룡산 동화산장에서 「제3회 양돈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돼지 설사병(PED) 근절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양돈기술세미나는 우리나라 양돈장에서 연중 문제시되고 있는 PED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과 현장사례가 접목된 현장감 있는 강의를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월 20일 오후 5시부터 양돈기술세미나에 이어 계룡산 동화산장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 및 회원단합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03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 보고,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총회 후 회원들의 친목 강화를 위한 회원단합수련회를 함께 개최한다.

■ 문의 : 02-579-5042

도드람 농사문화재단 양돈연수원, “한국양돈연수원”으로 호칭 변경

도드람·농사문화재단 양돈연수원(이사장 김범일)은 금년 1월부터 연수원의 일반 호칭을 “한국양돈연수원”으로 개칭했다.

연수원 재단 이사회는 아시아 농업의 산업화는 물론 식(食)문화의 육식 대중화로 급변하는 생태 농업에 국제적 감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칭을 변경하였다.

■ 문의 : (031)632-0756

농경연, 「농업전망 2004」 발표대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월 29일(목) 11시30분부터 서울 양재동 소재 aT 센터 대회의실(5층) 및 중회의실(3층)에서 ‘시장개방 :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농업전망 2004」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국내의 농업·농촌경제 동향과 전망과 농산물 협상 동향과 전망 및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양돈**